

# 호주 농식품 수출품목 소매가격조사

6월



김



음료류



주류



제과류



면류



소스류



기타 가공식품



신선식품





# 1. 김

####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김 중량(10g) 당 가격 비교



# 2. 음료류 (인스턴트커피)

##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인스턴트커피 중량(100ml) 당 가격 비교



# 3. **면류** (건면류)

##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건면류 중량(100g) 당 가격 비교



# 4. 주류 (맥주(캔))

#### TT 18 TT 1 4 TT 1

1) 원산지 별 맥주 중량(100ml) 당 가격 비교



## 5. 제과류 (비스킷류)

####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비스킷류 중량(100g) 당 가격 비교



# 6. 소스류 (드레싱류)

####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드레싱 중량(100ml) 당 가격 비교



※ 호주 달라의 경우 원화 환산 시 KEB하나은행 6월 27일자 기준으로 작성, 7달라 = 865.50 원



# 1. 김

## ● 현지산 ● 한국산 ● 수업산

2) 원산지 별 김 중량(10g) 당 가격 변동 추이



# 2. 음료류 (인스턴트커피) • 현지선 • 한국산 • 수입산

2) 원산지 별 인스턴트커피 중량(100ml) 당 가격 변동 추이



## 3. **면류** (건면류)

# 현지산 한국산 수입산

2) 원산지 별 건면류 중량(100g) 당 가격 변동 추이



## 4. 주류 (맥주(캔))

● 현지신 ● 한국산 ● 수입산

2) 원산지 별 맥주 중량(100ml) 당 가격 변동 추이



# 제과류 (비스킷류)

# ● 현지신 ● 한국신 ● 수입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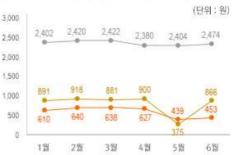
2) 원산지 별 비스킷류 중량(100g) 당 가격 변동 추이



# 6. **소스류** (드레싱류)



2) 원산지 별 드레싱 중량(100ml) 당 가격 변동 추이



※ 호주 달러의 경우 원화 환산 시 KEB하나은행 6월 27일자 기준으로 작성, 1달러 = 865,50 원

# **&** 기타 가공식품

## **가격 상승** ▲ " 공급부족으로 치솟는 오징어 가격 "

호주 내 유명 한인마트인 하나로마트 브리즈번 지점의 Mr. Jeong과의 인터뷰 결과, 오징어 관련 제품의 가격이 모두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산 오징어의 부족으로 인해 냉동오징어·마른오징어 및 오징어 관련 제품의 가격인상과 물량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로했다. 최근 계속되는 해양환경변화로 해양생물 대표어종인 오징어의 어획량이 격감했고, 이는 국내 및 해외수출 품목에도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시적인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쯤 과거와 같이 원활한 물류 조달 및 가격 안정화가 이루어질지시기가 예측되지 않는다는 말을 덧붙였다.



[정화식품社 마른오징어]

## 가격 하락 ▼ 수요 증가 ▲ "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 공략 "

호주 한국식품 전문 유통업체인 브리즈번 하나로마트의 Mr. Jeong의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 ㈜솔뫼 F&C 기업의 조미김이 가격을 내려 판매율 증가를 꾀했다고 밝혔다. 이미 포화상태인 호주 조미김 시장에서 유일하게 가격 하락 전략을 시행하여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을 줄임으로서 판매율 성장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한국산 조미김 브랜드 제품들은 모두 비등비등한 인지도와 판매율을 보이고 있었지만, 솔뫼F&C기업 제품의 가격 조정은 제품의 인기를 급부상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주)솔뫼F&C社 조미김]

## ● 음료류

## **가격 상승 ▲** " 호주 정부의 정책 강화로 수입 식품 가격 상승 "

호주에서 중국, 홍콩, 대만, 일본, 한국, 태국 등의 아시아 식품을 전문적으로 수입·유통하는 Evermore (Group) Pty Ltd.의 Mr. Chan과의 인터뷰 결과, 태국산 코코넛 음료와 중국산 차(茶) 제품의 가격이 오른 것으로 전했다. 호주는 매우 다양한 문화를 가진국가로 제품의 특수성이 심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제품의 판매율이 비슷한 편이라 했다.하지만 최근 호주 정부에서 세금·수입관세 등과 관련된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에 따라수입 식료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임을 설명했다. 특히 호주 현지 업체가 동종·유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수입 제품 대비 호주 생산품의 가격이 저렴하므로 기존 고객유지 및 신규 고객유인이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CK社 코코넛 쥬스]

# ♣ 주류

# **수요 감소** ▼ "한국산 과일 막걸리, 호주에서는 非선호식품"

호주 내 한국식품 전문 수입·유통업체인 J-US Global Pty Ltd.의 Mr. Jang과의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다른 맛이 가미된 특이 막걸리의 판매율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을 찾는 소비자들의 평가로는 일반 막걸리에 비해 맛이 가미된 특정 막걸리에 쉽게 열광하지만 그만큼 빨리 질린다고 전했다. 맛에 있어 일반 막걸리보다 빨리 물려 많은 양을 마실 수 없고, 한 번 시도해본 후에는 재구매율이 현저하게 낮다며 자꾸만 줄어드는 판매 이유를 설명했다.



[천년주가社 막걸리]